

2017년 5월 14일,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김옥자(여, 1932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김상선(여, 1933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- 줄거리: 제보자는 해녀들을 인솔하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 바다에 5일씩 물질을 해주었다. 하루는 사계리에 당도하여 천막을 치고 다음날 물질을 하려 잠을 청하는데,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아랫마을 쪽에서 여자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났다. 얼마 후 양복을 입은 남자가 천막 아래를 기어가며, “이런 놈은 죽어야지!” 하고 바다 쪽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천막이 무너져 버렸다. 당시 천막 안의 해녀들은 이 남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었으니, 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였다. 뒷날 집으로 돌아온 제보자는 사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, 해녀들이 천막을 친 자리가 화장터 자리였으며, 옛날은 사람이 죽으면 그저 아무 곳에서나 시체를 태우고 그 잔해를 바닷가에 던졌다는 것이다. 그때야 제보자는 그 남자가 귀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.

[제보자1] 구룡포. 여기서 이젠 구룡포엔 헌 딜 가면은 거기는 구좌읍을 전부 다 단체로 헤여. 집단으로 한 바당에 오일 썩, 오일 썩 헤서 세화 오늘, 낼은 하도, 모레는 종달리. 그런 식으로 허는디. 밤에도 아니 와. 거기서 자지. 천막 쳐가지고.

아. 잠을 자는디 비가 되게 오는 거라. 비가 되게 오나네 이젠 성젠. 우리 성제가 갓는다. 성제가 영 헨 ?뜬 모록에 헨 가만히 자난. 비가 하도 천둥허멍 비와가난 인제 일로 세는 거라. 천막에 이젠. 게 이젠 장작불을 그때는 고무옷 입엉 안 혈 때. 물옷만 입엉 혈 때니까 장작을 영 헨 세wayne. 세wayne에 우리신 더레 비 세지 아니 허게 영 헨 세와 놓는다. 가만히 잇인디 여자 한 사람이 막 우는 소리가 나.

‘이상하다.’

저 아랫마을에서. 우리는 가름 베꼈다서 그 바닷가에서 천막을 쳐서 자는디.

‘이상하다. 저 아랫마을에서 애기가 죽으나 누게 죽언에. 이제 물으레 오라 가니깐에. 저 애기 엄마는 따로오면서 저렇게 울없구나.’

경만 생각hen. 남즈들토 다같이 묵곡. 비 오니까 집에 못 가서 다 같이 묵곡 헛는다.

‘아이고, 이상하다, 이상하다가.’ 가난 머릿살이 막 거스승하는 거라.

‘이것이 무신 구신이 나왓인가?’

겐 쪼끔 잇이니깐 이젠

“이런 놈은 죽어야 허지!”

허멍, 우리 천막 친더레 바로, 이거 실지주게.

“죽어야 허지!”

허멍 와당탕허게게 엎어지난 이젠. 우린 그, 저 천막을 장작 이만이헌 장작으로 헤네, 비 아니 오게시리 탁 세와 논데레 자빠지난. 이 장작이 털어질 거라. 게 난 우리 대가리 다 맞곡. 겐디 천막은 영, 영 헤젓지. 영 헤지난 요기론 밧줄을 멘 저래 밧줄 메고 헨다. 이 사람이 이 알로 걸어가는 거라, 그 닷줄 멘 알로.

영 헨 넘어가야 훨 건디. 그 남자가 곱닥헌 구두 신고. 거난 건 헛게주. 그 곤색, 우리 보기에는 진짜 남자라. 게난, 곤색 바지 입곡 멋진 구두 신곡, 헤영 헌 와이셔쓰 입은 냥 그 닷줄을. 예를 들어 이거 천막이면은 이렇게 영 저디? 장 메젠 허믄 야프잖아, 일론이? 게난 발을 영 넘어가야 훨 건디. 그 알로 넘어 간 거라, 이 남주가.

[조사자] 아래로 영 헨 쑹 지나간마씨?

[제보자1] 어, 바다 쪽으로.

[제보자2] 게난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. 헛게.

[제보자1] 아니, 우린 그때 거를, 걸 사람으로 생각햇지. 사람으로 생각햇 잇인디.

“이런 놈은 죽어야 허지!”

허멍, 이젠 헤네 글로 바당더레 이젠 넘어가난. ‘아, 이 사람은 바다에 이젠 빠 정 죽엇구나.’ 죽으민 낸은 이 바당에 작업은 이제 못허지 이제.

‘그 사람이 죽엇으믄은 아이고, 어떻 하믄 좋고, 어떻 하믄 좋고.’

삼일 째 날인디, 남주덜을 이제 일렷어 그디 기지자덜을, 그 지방 기지자덜을 깨왕

“아이고, 여기 어떤 사람이 일로 강 ‘죽어야 허주!’ 허멍 죽으난, 이 바다에사 갓인디 저 천추 물론 거 덮어 논 것사 가정 값인디 모르니까, 일어나그네 강 좀 보렌.”

경 헤도 그 기지자덜이 꼬딱도 안 혀는 거라. 일어난 말 들은 체도 안 허는 거라. 나 말을. 난 인솔행 뎅길 때니까 나가 인제. 그디 해녀덜은 책임정, 뭐 헤

야 뭘 건디.

‘하이고이, 사람덜토 안 일어나고.’

하필 포항 그때 장시에는 바당 기지자도 오고 헌 날인다, 안 현, 계난 듯날
아직인

“우리 이제 절대 이디서 물질도 못 허고 무서완에 이제 뭘 못허쿠다, 집일 가
야주.”

헨 이젠 들후은 집이 오란 허난, 그, 우리 그 사둔이 그디 사나네 이젠, 시어
머니 그디 사난,

“너네덜 왜 왓나, 왜 왓나?”

“어치녁 밤이 도깨비가 나오나네 바당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…….”

그때 그 장은 도깨비라고 안 혔지.

“사람이 죽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肯.” 겨난

“어디 갓는데?”

“우리 저 세계 간에 천막 천에 그디 강 누웠우다.” 그 동네 이름이 세계라.

“아이고, 거기 화장터에 강 너네가 천막을 첫구나.”

[조사자] 화장터 자리마씨?

[제보자1] 어. 화장터 자리. 겨난 옛날에는 우리 걸 몰랐지게. 옛날에는 이런 디 화장, 법
에서 뭐 헌디 엇이니까. 거 육지 사람덜은 바닷가에 가서 돌 영 놓, ?랑쳉이나
이레 걸쳐놓, 장작 걸쳐놓 불을 테왕 바당에 데껴부난. 그디엔 허는 거라. 우리
○○이 할망이 그디엔. 아이, 경 골으난 이젠 그때 더 겁나는 거라. ‘이것이 혀
게로구나!’ 헤네. ‘아이고, 요게 혀게구나, 정말로.’

[제보자1] 그것이 다이 이 사람 죽어난 디서 뭐하믄이 그 죽은 사람이 허, 혀게 닮은 사람
으로 나와. 혼이 나왕 추워. 계난 그것이이 이제 우리 보기에는 사람 닮아도 사
람이 아니.

[제보자2] 겨난 우리 보기에는. 그날 딱 근디 시계가이, 시계가 딱 오분 전 열두 시라, 시
계가.

- 핵심어 : 구룡포, 천막, 혀게, 화장터, 바당, 혼, 남자, 해녀, 아랫마을, 바다, 도깨비